

조선에 울려 퍼진 여성의 음악 소리:  
'조선' 여성이 '서양'음악에 주목한 이유에 대하여

조 윤 영

1. 들어가며
2. 거리에서 들리는 여성의 노랫소리
3. '서양'음악 하는 '조선' 여성의 출현
4. 음악, 근대여성의 새로운 표식
5. 나가며

## 개 요

이 논문은 조선 여성들이 서양음악을 통해 근대(近代)라는 새로운 시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조선'여성이 '서양' 음악에 주목한 이유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었던 조선 여성들은 근대적 여성이 되기 위해 서구의 힘이 필요했다. 많은 여성이 서양음악을 수용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었기에 여성들에게 음악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과 여성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음악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배경과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제도권 밖 여성들의 음악 활동까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조선 여성, 서양음악, 근대여성, 신여성, 피아노, 축음기

## 1. 들어가며

자신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은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것이 자신들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간난이', '언넌이', '섭섭이'처럼 막 지은 이름으로 혹은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대다수의 조선 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반하거나 대항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 뒤에서 살아가는 것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갔다. 개화와 함께 '근대(近代)'라는 새 시대가 도래(渡來)하였다. 조선의 근대는 외부의 힘, 특히 서구의 동력에 의해 자리 잡아갔다. 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서양식 사고를 하는 지식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선 여성들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여성들이 가정 밖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음악은 큰 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근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표식이자 단순한 소리의 현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기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들은 근대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음악을 경험하고 근대를 노래하게 되었을까? 이 논문에서는 조선 여성들과 서양음악이 만나는 교점(交點)을 살펴보고, 여성들이 음악에 주목하여 음악을 통해 서양문화를 익히고 자신의 의식을 서구적으로 변화시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힘을 갖는 과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조선 여성들의 근대화 과정은 근대와 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성과를 내며 꾸준히 연구되어왔다.<sup>1)</sup> 최근 들어 음악학자들 사이

1) 강선미의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서울: 푸른 사상, 2005), 김정일의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서울: 푸른역사, 2004), 박용옥의 『한국근대여성사』(서울: 정음사, 1975), 이화형의 『한국근대여성의 일상』

에서는 여성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음악교육을 통한 음악과 여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 연구들은 특정한 종교 활동 아래,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와 선교사들의 업적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정작 대다수의 조선 여성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음악을 체현(體現)하는 과정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sup>3)</sup> 이는 주로 소수의 기독교인이나 지식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서술과 기록이 제도권 밖의 여성들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무관심했다기보다 증거나 악보 등 기록물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을 알아갈 길이 없었기에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선교사로부터 수용된 서양음악만을 보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소수의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음악 활동만 다루는 것이므로 일상의 다양한 측면을 다각도로 접근하여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당시 조선의 개화는 일부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서구와 일제의 영향이 공존했기 때문에 내한서양인들이 전파한 음악문화와 재조(在朝)일본인들이 향유한 음악문화를 고루 집중하여 조선의 문화와 섞여지는 독특한 배경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 여성들

---

문화』(서울: 국학자료원, 2004), 최혜실의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서울: 생각의 나무, 2000), 태혜숙의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여성학』 20/1 (2004), 33-56, 홍인숙의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7) 등 많은 역사학자와 여성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논문으로는 김사랑의 논문 “내한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과 청각적 근대화: 1885-1940년까지 미북장료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와 허지연의 논문 ““제국 속의 제국”: 일제강점기 한국의 고등음악교육과 미국의 해외선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등이 있다.

3) 대표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는 채현경의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 의식의 변화,” 『음악과 문화』 29 (2013), 119-158와 “하위계층 여성의 목소리 다시 생각하기,” 『이화음악논집』 17/2 (2013), 127-149에서는 여성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에 초점을 두고 하위계층인 여성의 음악 수용과 가치관 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 역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적 여성교육을 근대화의 주요 배경으로 다루고 있고 기독교 범주 밖 여성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서양음악을 만나는 과정은 특수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근대 문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의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음악 수용을 해석하기 위해, 문자화된 기록이 적은 만큼 여러 단서를 추적하며 여성들의 실제적인 음악 활동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여성과 관련된 근대 계몽기관의 음악 활동이나 악보와 교재, 신문기사와 잡지 등 근대여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관찰하면 음악과 여성의 만남이 다양하게 포착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기독교를 통해 서양음악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수용되기 시작하는 19세기 말부터 서양음악하는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 등장하는 20세기 초까지를 중심으로 서양음악이 조선 여성에게 침투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이 시기는 서구문물이 급진적으로 유입되면서 조선인들의 일상에도 서양풍이 스며드는 기간으로 서양음악이 정착하고 유행하는 시기와 일맥상통한다. 이로써 필자는 고유한 우리 문화에 익숙했던 여성들의 음악 언어가 서양음악 어법으로 전환되면서 조선 여성을 변화시키고 개화된 삶에 적응하여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구체화 시켜 보고자 한다.

## 2. 거리에서 들리는 여성의 노랫소리

1898년 만민공동회의 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신기료장수<sup>4)</sup> 김덕구(金德九)의 장례식<sup>5)</sup>은 의사(義士)라는 말을 만들어낼 만큼 조선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다. 장례식에 모인 군중들은 “충의 두 글자로 노래를

4) 헌 신발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5) 김덕구는 11월 22일에 사망하였고 12월 1일에 만민장(萬民葬)이 치러졌다. (“잡보,” 『독립신문』, 1898. 11. 29., “별보,” 『독립신문』, 1898. 12. 2., “잡보,” 『독립신문』, 1898. 12. 5. 외 다수.)

지어 애국가 일체로 소리를 높이 질러 서로 화답하고”<sup>6)</sup>, 그 노래 가사와 장례식 풍경은 신문지면을 통해 기록되었다.<sup>7)</sup>

남대문 밖 연못가를 당도하니 차일을 높이 치고 정구소(停柩所)를 배설하였는데, 처음에 영어학교 퇴학한 학원들이 제물을 성비하여 제문 지어 노제하고, 그다음에는 찬양회 부인 회원들이 또한 제물을 성비하여 노제하고, 그다음에 사립 홍화학교 교원들이 제물을 성비하여 제문 지어 노제하고, 그다음에 이화학당 교하는(이화학당 교회에 다니는) 부인들이 찬미가를 하는데 비록 목석이라도 충의 두 글자를 감동치 아니치 못하노라.<sup>8)</sup> (현대어, 밑줄, 괄호 표기는 필자)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진 이 행사에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여성들의 등장이 눈에 띄는데,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사회행사의 참여가 아니라 근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갑오개혁(1894)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과부 재가(再嫁) 허용이나 조혼 금지 등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서도 120여 명의 찬양회<sup>9)</sup> 부인들과 이화학당 학생들이

6) “별보,” 『독립신문』, 1898. 12. 2.

7) “잡보,” 『독립신문』, 1898. 12. 6.

“어화 우리 동포들아 충군 애국을 잊지 마라  
대한 의사(義士) 김덕구씨는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하다가  
옳은 의리에 죽었으니 그런 의리가 또 어디 있느냐  
어화 우리 회원들아 의리 이자 잊지 마라  
의리로만 죽거드면 만인 일심 흠모하여 김덕구 같이 장사하겠노라  
어화 우리 만민들은 제 몸 하나는 잊어버리고 나라 이란 열심하여라  
김덕구의 일신은 살아서는 무명타가 죽으니까 의사로다  
사는 것을 좋아 말게 죽어지니 영화로다  
김덕구의 의사 이름 천추만세에 유전이라” (현대어 표기: 필자)

8) “별보,” 『독립신문』, 1898. 12. 2.

거리로 나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한 연유였던지 며칠 후 이화학당에서는 장례식에 참석한 여학생들이 이화학당 소속이 아니라는 해명 기사를 내었지만<sup>10)</sup>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여성의 노랫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진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런 와중에 여성인 자신들의 신분과 행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11)</sup>

근대 초기 서양음악은 대부분 찬송가이다. 교회가 서양음악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찬송가 선율에 가사만 바꾼 노래들로 애국가를 비롯한 다른 노래들을 만들어 익혔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서양음악과 찬송가는 동일하게 여겨졌으므로, 김덕구의 장례식에서 불렀던 찬미가 역시 서양음악과 같은 의미의 용어일 수 있다.<sup>12)</sup>

- 
- 9) 1898년 9월에 조직된 여성운동 단체이다. 북촌에 사는 양반 부인 400여 명의 발기로 시작되어 양성원(養成院)·순성회(順成會)·찬양회(讚揚會) 등으로 불렸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 계발 운동을 추진하여 순성여학교(順成女學校)를 설립하고 만민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 참여하였다. “삼천리 넓은 강도 이천만 중 많은 동포 순성학교 찬양회의 애국가를 들어보오 단군기차 기천년에 부인협회 처음일세 여학교가 처음일세”라는 가사의 애국가를 만들어 불렀다.
- 10) “저번에 대한 의사 김덕구씨 장사하려고 운상하여 남대문 밖 연못가로 지날 적에 이화학당에서 교하는 부인네들이 김씨의 상여 정구소에서 찬미가로 기도하였다고 본사 신문 잡보에 기재하였더니 지금 들은즉 그 부인네들은 교하는 부인이오, 그러하되 이화학당에서 교하는 부인네들은 아니라 하기에 이에 설명하노라.” “잡보,” 『독립신문』, 1898. 12. 9.
- 11) 당시의 여권 신장은 가정에서의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전히 가족과 모성의 틀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다.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찬양회의 활동은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회의 주목과 격려를 받았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38-42.
- 12) 1910년까지 노래책은 찬송가집과 학교 교재용 『보통교육창가집』(1910)뿐이었다. 이후 발간된 『보통창가집』(1912)에는 찬송가 선율에 가사를 붙인 노래가 3곡 수록되었으며 만주에서 출간된 『최신창가집』(1914)에도 13곡이 수록되는 등 초기 발간된 창가집에는 찬송가를 차용한 노래가 여러 곡 포함되었다.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 (서울: 예술, 2001), 57-66.

여성들이 서구식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근대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 남성 지식인들의 도움과 영향이 컸다. 선교사는 교회와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서구식 교육을 하며 교회의 예배 음악, 주일학교와 미션스쿨의 음악 수업을 통해 서양음악을 전파하였으며, 근대문화를 먼저 수용한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취미로 서양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회를 다니며 서양음악을 향유하였다.<sup>13)</sup> 남성 지식인들은 조선여성들을 위해 각종 글과 언론을 통하여 여성 교육, 남녀평등, 여권 신장을 주장하며 주도하였고, 강연회에서 음악을 활용하거나 여성을 위한 노래책을 만들어 여성의 계몽에 힘썼다.<sup>14)</sup> 조선인들은 그 틈에서 직·간접적으로 서양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어느새 조선도 길거리에서는 노랫소리, 교회와 학교에서는 건반 소리, 공원과 광장에서는 밴드의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소리의 경험은 대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뻗어 나가며 서양음악이 확산되었다.

13) 외국인들의 비공개 사적 음악 활동은 공공연한 사실이였다. 각국 공사관과 자택에서 살롱 음악회를 열거나 여럿이 모여 취미 악기를 연주하였다.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은 아코디언을, 그의 아내 파니(Fannie)는 오르간을, 독일인 의사 분쉬(Richard Wunsch, 1869-1911)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등 각자의 일기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재조일본인들은 학교 음악 교육을 비롯하여 음악연구, 연주, 개인 교습, 음악 단체 조직 및 연주 활동, 음악 서적 발행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이 확인된다. 조선평화당에서는 하이페츠(Jascha Heifetz, 1901-1987),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 1875-1962) 등 해외 유명 음악가들의 내한 연주회가 열렸으며 외국인들이 주요 관객이었다. 경성에서의 재조일본인들 음악 활동은 조운영, “경성(京城)의 음악회(1920-1935): 식민지 일상과 근대의 경험, 그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129-138참조.

14) 실제로 남성 지식인들이 여성들에게 근대식 교육을 강요한 이유는 서구식 부국강병 때문이었다. 그러한 교육을 위해 남성들은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여성 평등과 여성 교육에 대한 담론을 끊임없이 제시하였고 『가정잡지』, 『여자지남』과 같은 잡지, 『여자독본』과 같은 여성용 국어 교과서, 『이십세기청년여자창가』와 같은 여성을 위한 노래책 등을 발간하였다.

(그림 1) 시골 여학교의 음악 활동과 거리의 악기 연주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여든 “구경꾼들이 원형으로 둘러선 가운데 서서 나발 불고 북 치는”<sup>15)</sup> 구세군 악대, “팔팔한 높다란 음악서 뒤뚱발이 같은 저음이 한 덩어리로 되어 나오는 그 웅장한 음향과 척척 맞아 들어가는 듯한 경쾌한 리듬”<sup>16)</sup>의 이왕직악대와 어우러졌다. “이층 노대(露臺)에서는 눈이 불거진 사람, 불이 불룩한 사람, 배가 내민 사람들이 새로 닦은 돛그릇 같은 악기를 메고, 들고, 흥겨운 몸짓”<sup>17)</sup>을 하는 극장 악대의 서양 악기 소리가 울렸다. 이는 조선인들에게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근대로 향하는 힘의 소리였다.

여성들이 서양음악을 경험하는 기록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운동가 차미리사(車美理士, 1879-1955)는 어릴 적 교회에서 찬미가를 들으며 찬양을 하고 풍금을 쳤던 기억을 회고하였으며,<sup>18)</sup> 여성 교육가 박

15) 이혜구, 『만당음악편력』 (서울: 민속원, 2007), 18.

16) 이혜구, 『만당속문채록』 (서울: 천보인쇄주식회사, 1985), 383-384.

17) 이태준, 『사상의 월야』 (서울: 소명출판, 2015), 138.

18) 조운영,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차미리사와 근화여학교의 음악활동,” 『인문과학연구』 27 (2018), 134재인용. “명사 제씨의 학생 시대 회고,” 『삼천리』,

인덕(朴仁德, 1896-1980)은 풍금에 맞춰 노래 부르는 것은 반음계와 화음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예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억눌린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해 주었다.”고 술회하였다.<sup>19)</sup>

### 3. ‘서양’ 음악하는 ‘조선’ 여성의 출현

조선 여성들은 서양음악을 접하고 난 후, 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교육은 음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고 학교 밖 여성 계몽 활동에도 음악은 반드시 포함되었다.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주·야학(晝·夜學)에서는 음악을 교과목으로 두어 노래를 가르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성 계몽을 담당하던 순회강연단의 강연회에서도 여성 음악가들의 노래와 악기 연주는 강연 못지않게 중요한 순서였다.<sup>20)</sup>

음악을 한다는 것은 신여성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직업이든 취미든 간에 자신의 삶과 음악을 결부시켰다. 음악하는<sup>21)</sup>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과 음악의 조합은 익숙해지고 당연해져 갔다. 이 장에서는 여성들이 음악을 수용하는 과정을 직업과 취미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935. 4., “춘풍추우(春風秋雨) 오십년 간에 다루다한(多淚多恨)한 나의 역사,” 『별건곤』, 1928. 1.

19) 박인덕, 『구월 원숭이』 (서울: 인덕대학, 2007), 37.

20) 조운영,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차미리사와 근화여학교의 음악활동,” 134-135, 141-144.

21) 여기에서 ‘음악하다’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을 하는 것부터 음악을 듣고 음악회를 다니고 공연을 만드려고 음악을 논하는 등 음악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지칭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스몰 / 조선우·최유준 옮김, 『뮤지킹 음악하기』 (파주: 효형출판, 2004) 참조.

## 1) 직업

서양음악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남들보다 신교육을 먼저 받았거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 신문화를 일찍 접하여 서양음악의 가치를 경험해 본 여성들이었다. 이 당시 직업여성<sup>22)</sup>의 비율은 전체 여성 인구에 비해 미비했고 그마저도 대다수의 여성들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소위 신여성으로 불리는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교육, 언론, 예술, 종교, 의료업에서 일하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sup>23)</sup> 소수(小數)였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컸다.

이들 중 교육과 예술, 종교 계통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서양음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여성 운동가나 여성 교육가, 여성 음악가나 음악학교 여학생, 예배 반주자 혹은 성가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음악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예배와 관련 있는 기독교계 학교가 아니어도 근화여학교처럼 음악과를 신설하여 음악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여학교가 생겨났다. 중등교육을 받고도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여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 캐나다, 미국, 독일 등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성악이나 피아노에 치중했던 초기와는 달리 여성들도 다양한 악기에 도전하였다. 이화여전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전공으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지도하였고,<sup>24)</sup> 여성 음악가 김영의(金永義, 1908-1986)는 이화 기숙사에 지낼 때 바이올린을 잘 켜는 친구에게서 바이올린을 배웠으며 금관악기인 코르넷(Cornet)도 배워 예배당

22) 여기에서는 사회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통틀어 직업여성이라 칭하겠다.

23) 이 부분은 김경일의 논문 “일제 하 여성의 일과 직업”에 나온 [표-4] 자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공무자유업이라는 직업별 범주 역시 위 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김경일, “일제 하 여성의 일과 직업,” 『사회와 역사』 61 (2002), 163-166.

24)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73, 75.

에서 찬송도 했다.<sup>25)</sup> 조선여자교육회 강연회에서는 배화학당 교사 백경애(白敬愛)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고<sup>26)</sup> 정소군(鄭昭君)은 필리핀에서 유학 후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sup>27)</sup> 코리아음악연구소에도 바이올린을 배우는 여학생이 있었다.<sup>28)</sup> [그림 4]의 『세동무창가』 표지처럼 남성들과 나란히 앉아 한복을 입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성의 모습이나 [그림 2]의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의 목관화 “저것이 무엇인가”<sup>29)</sup>와 같이 신여성의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한껏 멋을 내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채로 거리를 나선 여성의 모습, 진주목걸이를 하고 바이올린을 든 여성의 머릿기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음악 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이미 대중의 뇌리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장사훈, 『여명의 양악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90-91.

26) 조윤영,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차미리사와 근화여학교의 음악활동,” 141재인용. “부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험,” 『동아일보』, 1920. 4. 14., “여자하기순강,” 『동아일보』, 1921. 7. 5., “여자해방의 新宣傳,” 『매일신보』, 1921. 7. 5., “조선 여자교육회 주최 여자하기순강,” 『조선일보』, 1921. 7. 5. 외.

27) 홍중인, “반도악단인 만평,” 『동광』 (1931. 6.), 43.

28) 草笛童, “코리아음악연구소 방문기,” 『사해공론』 (1935. 10.), 148.

29) 나혜석, “저것이 무엇인가,” 『신여자』 (1920. 4.), 40.

[그림 2] 나혜석의 작품과 신문광고

나혜석의 목판화	머릿기름 신문광고
 <p>이 목판화는 나혜석의 작품으로, 전통적인 한국 풍경과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 하단에 'Pha'라는 서명이 보인다.</p>	 <p>머릿기름을 판매하는 신문광고. 위쪽에 '우리 민족의 머리만큼 한이 없네'라는 문구가 있고, 아래에 '승기달배'라는 브랜드 이름과 '전十四에빙중' '전十六에빙중'이라는 문구가 있다.</p>

그러나 서양음악을 하는 여성들에게 제약은 많았다. 학교를 졸업해도 유학이나 취업의 길이 좁았고 음악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냉랭했다. 그녀들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비난받는 존재였다. 무대에 오르는 여성들에게는 언제나 집중과 관심이 따라다녔다. 신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음악하는 것을 터부시했던 조선 사회의 조롱하는 시선에 대한 감내가 공존했다.<sup>30)</sup> 게다가 재능보다 외적인 면모에 치중하여 실력이 아닌 외모로 평가하거나<sup>31)</sup> 결혼하기 위하여 음악을 한다는 등의 왜곡된 시각까지 생겨났

30) 이광수의 소설 『무정』에서는 딸이 음악을 한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것은 배워서 광대 노릇을 하겠”이라며 “난봉났다”고 한다. 이광수, 『무정』(서울: 푸른사상, 2011), 291.

31) 이효석의 소설 『벽공무한』에서는 주인공들이 녹성음악원(錄聲音樂園)이라는 여성들을 위한 음악교육기관을 만들기로 하면서 “원생 선발 시험의 표준은 학력보다 두 용모에 두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미모의 여성만을 모아서 교육”하고 “용모

다. [그림 2]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나이든 남성들은 음악하는 여성에게 건방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던졌고 젊은 청년은 음악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우울해하기도 했다.<sup>32)</sup> 두 번째 그림은 광고상품과 전혀 상관없는 악기 든 여성의 이미지를 그려 넣어 신문물인 머릿기름의 이미지와 결부시켜 사치스러운 듯한 음악 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다.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나 무대에 설 기회부터 남성보다 적었을 뿐 아니라 여성이 다룰 수 있는 영역도 대부분 성악과 피아노에 국한되어 있어 여성의 역할과 한계가 구분 지어졌다. 여성은 각종 악기를 배울 수 있었으나 함부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남성이 할 수 없는 음역의 노래 파트를 담당하거나 남성 연주자의 반주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정작 음악 활동은 가정과 종교 안에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직업여성으로서 서양음악을 시도한 주목할 만한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기생(妓生)이었다. 몇몇 기생들이 음반을 취입하며 연예계에 들어가 성공을 거두자 다른 기생들도 더 이상 전통예술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

를 본다는 것은 예술적 재능에다 또 한 가지의 조건을 더 붙여서 완전한 최상의 예술가를 맨들자는 뜻인데, 같은 예술이래두 그림이나 문학은 작가가 스튜디오나 서재에서 혼자 숨어서 제작한 결과를 사람에게 보이거나 읽히면 그만이지만, 음악에 있어서는 특히 그 연주의 경우에는 반드시 음악가 자신이 무대 위에 나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과 용모 두 가지의 매력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덧붙여 말한다. 이에 옆자리에서는 “학생만 미인이래서야 되겠수. 교수두 전부 여자로 미인만을 추려서 세계 제일의 미의 전당”을 만들라 거둔다. 이효석, “백공무한,” 『이효석 전집 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37, 351-354.

32) 작품 속 문구는 다음과 같다. “저것이 무엇인고? 시속(時俗) 양금이라던가. 아따 그 기집에 건방지다. 저거를 누가 데려가나. -두 양반의 평- 고거 참 이쁘다. 장가나 안 들었더라면..... 맵시가 동동 뜨는구나. 처다나 보아야 인사나 좀 해보지. -어느 청년의 큰 걱정-”

을 가지고 서양음악을 수용하는 행보를 보였다. 기생학교에서는 시대에 발맞추어 서양음악과 서양 댄스 수업까지 개설하였다.

당시 기생들은 “예쁘고 똑똑하고 매력적”일뿐 아니라 소위 “괜찮은 집안 출신들도 꽤 많았”으며 “인성을 계발하고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역사에서부터 정치, 철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여야 했다.<sup>33)</sup> 전문예능인이라 할 수 있는 기생들은 권번(券番)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평양 권번은 3년 과정의 부설 교육기관인 평양 기생학교<sup>34)</sup>를 들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들은 시조, 가사, 서화, 수학, 무용을 비롯하여 서양 음악도 배웠으며 사진엽서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sup>35)</sup> 그 엽서에는 기생들이 서양악기를 연주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글쓰기에도 능했던 기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잡지 『장한(長恨)』<sup>36)</sup>을 발간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sup>37)</sup>

33) 박인덕, 『구월 원숭이』, 7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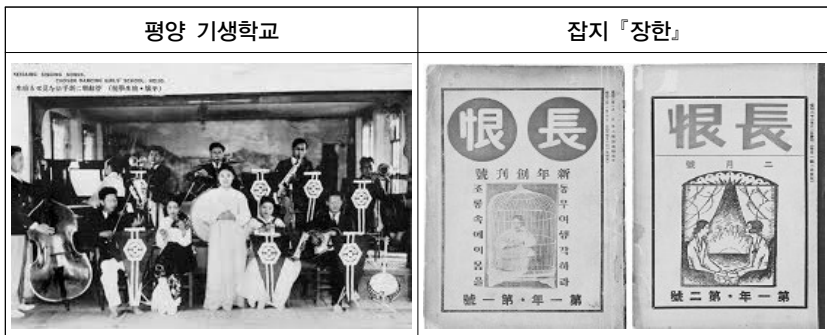
34) 정확한 명칭은 평양 기성(箕城) 권번 기생양성소로 대동강 부근에 위치하였다. 타지 사람들이나 일본인들이 평양에 오면 반드시 거쳐 가는 관광코스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곳의 교육과정, 학비, 입학연령 등에 대해서는 신현규, 『기생 이야기』 (과주: 살림, 2007)참조.

35) 일제는 조선의 문화와 풍속을 담은 사진엽서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대체로 1910년에서 1935년 사이에 만들어진 사진엽서들은 제작에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엽서에 적혀있는 내용 외에 다른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평양 기생학교는 유명 기생 양성의 산실로 인기를 얻자 평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이 학교의 사진엽서는 학생들의 기예 장면과 수업과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신현규, 『기생 이야기』, 60-66.

36) 1927년 1월에 창간된 기생(妓生)들의 동인지이다. “권두언”을 보면 마음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라는 뜻의 잡지명과는 반대로 기생들도 마음과 힘을 합치고 수양하여 장한이 없도록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남성 필진을 제외한 여성 필진은 전부 기생들이었고, 권번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수준 높은 예술가로서 작문 실력을 보였다.

37) 『장한(長恨)』과 비슷한 특징의 잡지가 더 있다. 여성의 목소리라는 의미의 잡지 『여성(女聲)』은 카페 여급(女給)들이 중심이 되어 1934년 4월 1일에 창간되었으나 언제까지 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림 3) 서양악기를 연주하는 기생과 잡지 『장한』의 표지



위의 사진엽서로는 연주단의 모습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양장(洋裝)을 입은 남성 연주자들 사이로 정중양에는 노래하는 여성이, 그 뒤로는 한복을 입고 바이올린과 피아노,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엽서 왼쪽 상단에 ‘KEISAING SINGING SONGS, CHOSEN DANCING GIRLS’ SCHOOL, HEIJO (平壤 妓生學校) 管絃樂に新手法を見せる妓生’이라고 쓰여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 기생학교라고 추정할 뿐이다. 일본어로 ‘관현악에 새로운 기법을 선보이는 기생’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악기 대신 서양악기를 연주하는 기생의 모습이 자못 새롭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취미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음악 하는 모습은 조선 여성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대표적인 여성 잡지에는 남성 필자가 모던여성이 되려면 여성들은 유희를 배워야 한다며 대놓고 주장하고<sup>38)</sup> 각종 잡지, 소설책, 노래책 표지마다 음악과 여성의 이미지가 그려졌다.

38) 윤지훈, “모던여성 십계명,” 『신여성』 (1931. 4.)

[그림 4] 악기와 여성이 그려진 표지들

잡지 『삼천리』	잡지 『신여성』	잡지 『어린이』
		
소설 『애원성』	『세동무창가』	『오동나무창가집』
		

이처럼 음악과 여성은 자연스럽게 짝이 되며 시각화되어 여자아이부터 성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서양악기와 함께 만들어진 이미지는 근대적 여성성을 대변하였다.<sup>39)</sup> 신여성의 조건은 근대적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사고

39) 이러한 음악과 여성의 묘사 자체는 음악을 순수한 예술 장르로 보지 않고 시각적으로 여성성을 만들어내는 남성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음악 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로 나뉘었기에, 쪽진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어도 서양음악이라는 근대 문화를 경험하고 소비할 줄 아는 여성은 신여성의 조건을 갖춘 것이었고 새로운 여성상의 본보기이자 선구자가 될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신여성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집안에 피아노와 축음기라도 두어 소극적 음악하기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생겨났다. 그녀들은 가정에 서라도 음악의 힘을 빌려 고상한 신여성처럼 살아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했다. 원래 조선 여성에게 근대적 교육을 하려는 목적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에 있었으므로 서양음악이 보급된 이후의 어머니는 피아노와 축음기로 장식된 문화주택에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교양 있는 모습으로 대변되었다. 여전히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신여성의 판타지는 매혹적이었고 남성들은 그런 여성들에게 다소곳하게 음악 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음악과 함께 가정 안에 머물게 했다.

실제로 모던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피아노와 축음기를 구비해야 하는 유행까지 생겼다. 연애결혼으로 인해 여성의 요구가 가정생활에 반영되는 사회 풍조도 한몫했다. “피아노’란 것은 조선서 말하자면 시집갈 때 장롱을 장만하듯이 ‘피아노’를 장만해 가지고 시집간다.”<sup>40)</sup>할 정도로 결혼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돈 많은 자의 작은 집 같은 것을 최신식으로 꾸민다고 피아노로써 치장을 하지만 대개는 가만히 바라볼 뿐이며 고운 먼지 켜”<sup>41)</sup>만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아무리 좁아도 피아노를 들여놓는 집이나<sup>42)</sup> 문화주택에 피아노만 사주면 일흔 살의 노인도 좋다는<sup>43)</sup> 만문만화(滿文漫畵)의 세태풍자 문구는 당시 피아노

만들어 여성을 음악 안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이다.

40) 이에내, “음악은 생활의 한 부분,” 『조선일보』, 1939. 11. 28.

41) “실내 보온법과 겨울 피아노 간직,” 『동아일보』, 1928. 12. 9.

42) 안석영, “낙타가 바늘구멍으로(1),” 『조선일보』, 1931. 6. 24.

43) 안석영, “여성선전시대가 오면(2),” 『조선일보』, 1930. 1. 12.

로 대표되는 음악에 대한 허황된 선망(羨望)과 시대적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림 5) 영화와 회화 속 음악과 여성

영화 <미몽>의 한 장면	이윤탈, 인물일대: 화운(和韻)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과 영화, 회화에서도 음악은 신여성의 모던한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척도로 사용되었다. 영화든 회화든 단란한 가정의 이미지는 화초가 놓인 피아노 혹은 축음기 곁에서 생산되었다. 소설에서는 신여성의 대표주자로 음악 하는 여성이 종종 등장하였고 학교 밖 남학생들은 음악회를 찾아 음악회장의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이광수(李光秀, 1892-1950)의 『무정』에서 일본으로 음악을 배우러 떠나는 영채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병옥, 김남천(金南天, 1911-1953)의 『낭비』에서 이화여전과 동경음악학교를 나온 이관덕, 『사랑의 수족관』에서 재벌의 딸이자 피아노 치는 경희와 덕희, 최서해(崔曙海, 1901-1932), 김기진(金基鎭, 1903-1985)

등의 연작소설 『여류음악가』에 나오는 여성 음악가 경애 등이 음악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그려졌고, 이태준(李泰俊, 1904-?)의 『사상의 월야』와 민태원(閔泰瑗, 1894-1935)의 『음악회』, 김유정(金裕貞, 1908-1937)의 『이런 음악회』, 이효석(李孝石, 1907-1942)의 『벽공무한』 등에서 당시 음악회를 다니던 조선인들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현진건(玄鎭健, 1900-1943)의 『피아노』와 김동인(金東仁, 1900-1951)의 『음악공부』<sup>44)</sup> 등은 음악이 얼마나 조선인들의 허상과 욕망을 채우는 매개체가 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다양한 프레임 속의 여성들은 전통의상과 서양문물의 이질적인 모습이 보여주듯,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가교(架橋) 역할을 할 정도로 음악과 여성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 4. 음악, 근대여성의 새로운 표식

여성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지하게 되는 과정에 적응하기 위하여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과 시선을 감내하며 서구식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조선 남성들이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가 국권 회복을 위한 서구식 부국강병이었다면 여성들은 왜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여성 스스로 자아를 찾기 위한 힘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1927-2008)은 “문화는 권력을 따른다(Culture follows Power).”고 하였다. 권력은 힘이며, 힘이 있는 곳에 언제나 문화가 따른다고 가정할 때, 힘없고 나약한 조선 여성들이 힘을 기르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근대 문화를 수용

44) 김동인의 단편소설 『음악공부』는 1921년 1월 『창조』에 김만덕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1923년 첫 창작집 『목숨』(창조사)을 발간할 때 『유성기』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수록하였다.

하는 일이었다.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신여성 중에는 예술계통에서 그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화가 나혜석(羅蕙錫, 1896-1948)과 무용가 최승희(崔承喜, 1911-1969)를 비롯하여 소설가 김명순(金明淳, 1896-1951)은 일본에서 음악을 전공한 이력이 있으며, 사회운동가 주세죽(朱世竹, 1899-1950)<sup>45)</sup>은 중국 상해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다.

이들은 예술과 해외 유학을 통해 근대 문화에 일찍 눈을 떴다는 공통점을 공유하며 선각자이자 신여성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여성의 해방과 자아실현에 관심이 많았다.<sup>46)</sup> 나혜석은 『경희』(1918), 『이혼 고백장』(1934) 등의 글을 통해 여권(女權) 향상에 대해 고민했으며 성악가 윤심덕(尹心惠, 1897-1926)은 일본 동경음악학교 졸업발표회에서 입센(Henrick Ibsen, 1828-1906)의 희곡 《인형의 집》(Et Dukkehjem)<sup>47)</sup> 여주인공 노라 역을 맡으며 간접적으로 여성해방을 체험하였다. 노라는 근대적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여성상으로 대두되는 인물로 조선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sup>48)</sup>

45) 주세죽의 생몰연도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온다. 필자는 그녀의 생몰연도를 공훈전 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관리번호: 42308)에 의거하여 기록하였다.

<http://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검색일: 2019. 9. 22.

46) 김경일은 급진주의 여성들이 민족적, 정치적 쟁점에는 무관심한 편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의 부문에서 활동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한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72.

47)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의 3막 희곡으로 1879년 코펜하겐 왕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여주인공 노라가 여성으로서 자아를 찾고 인간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여성해방을 그린 대표작이 되었다. 노라의 인기는 구시대에 대항하며 여성의 독립과 해방을 확립하려는 노라이즘(Noraism)을 만들어냈다.

48) 당시 이 소설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매일신보』에 연재가 되고 작가들의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패러디 소설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양백화(梁白樺, 1889-1944)와 박계강(朴桂岡)이 번역하여 출판한 소설 『노라』(1922)에는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이 작곡하고 나혜석이 가사를 쓴 <노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실려 있다. 이 곡은 연극 공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신문 연재 기간 중인 1921년 4월 2일

서양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명화된 서양 근대국가의 산물이었기에 조선 여성들은 서양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얻는 심리적 기제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서구가 가진 높은 문명의 힘은 식민지배자인 일본인들까지 힘을 못 펴고 동경하며 흉내 내는 현실을 지켜보는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문물과 서양음악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여성들의 서구 동경은 여성이 근대적 여성으로 재탄생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음악과 영어를 강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여학교들은 음악과와 영어과를 두어 학생들에게 서구문화를 이식함으로써 모던한 서구적 삶을 살 수 있게 도왔다. 음악과 영어 실력이 월등했던 박인덕의 경우 신여성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었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차미리사는 지방 순회 강연회마다 영어노래를 독창했다.<sup>49)</sup>

음악은 이렇게 여성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음악 하는 여성들은 음악의 힘을 간파하고 음악을 사용하여 여성 계몽운동을 주도 하였으며 남성 지식인들과 상호작용도 가능해졌다. 비록 가정 안 음악과 여성의 이미지 속에 갇혀 정형화되고 모방된 근대의 삶을 살았더라도 조선 여성들은 근대여성으로서 삶의 방향을 모색하며 기존의 익숙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음악은 근대여성의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

에는 나혜석과 피아니스트 김영환(金永煥, 1893-1978)이 함께 만든 <인형의 가(家)>라는 노래를 실렸다. 두 노래에 관해서는 조운영, “음악, 근대 그리고 계몽: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은 누구인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87-93참조.

49) 조운영,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차미리사와 근화여학교의 음악활동,” 143.

## 5. 나가며

조선의 여성들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늘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남성과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여성으로 사회에 나와야겠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 근대적 여성이 되어야 했다. 서양음악은 가정에서 제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조선 여성들에게 세상으로 나오는 힘이 되어 주었다.

이 논문은 조선 여성과 서양음악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장에서 서양음악과 조선 여성의 만남 과정을 살펴보았다. 거리에서 여성들의 서양음악이 들리는 초기의 사건인 김덕구의 장례식을 통해 여성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며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여성들의 음악 수용과정을 직업과 취미로 나누어 확인해 보았다. 직업여성들은 서양음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음악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많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서양음악은 중요한 근대 문화로 자리 잡았고 기생들도 서양음악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취미로 음악하는 여성들은 음악과 여성이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일조했다. 그 이미지는 점차 시각화되어 대중매체에 노출되었고 정형화된 형상으로 굳어져 갔다. 4장에서는 조선 여성들이 서양음악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여성들은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서양음악의 영향에 힘입어 근대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자리 잡기 위한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음악은 근대여성의 새로운 표식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서양음악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조선 여성이 서양음악을 통해 근대라는 새로운 시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으로 추적해 보았다. 필자는 특히 지금까지 연구

에서 가려져 있던 제도권 밖 여성들의 모습을 조명하여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 그러한 여성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욱 부각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신문과 잡지

- “잡보.” 『독립신문』. 1898. 11. 29.  
“별보.” 『독립신문』. 1898. 12. 2.  
“잡보.” 『독립신문』. 1898. 12. 5.  
“잡보.” 『독립신문』. 1898. 12. 6.  
“잡보.” 『독립신문』. 1898. 12. 9.
- “명사 제씨의 학생 시대 회고.” 『삼천리』. 1935. 4.  
“부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험.” 『동아일보』. 1920. 4. 14.  
“실내 보온법과 겨울 피아노 간직.” 『동아일보』. 1928. 12. 9.  
“여자하기순강.” 『동아일보』. 1921. 7. 5.  
“여자해방의 新宣傳.” 『매일신보』. 1921. 7. 5.  
“조선여자교육회 주최 여자하기순강.” 『조선일보』. 1921. 7. 5.  
“춘풍추우(春風秋雨) 오십년 간에 다루다한(多淚多恨)한 나의 역사.” 『별건곤』. 1928. 1.

- 나혜석. “저것이 무엇인고.” 『신여자』. 1920. 4.  
안석영. “낙타가 바늘구멍으로(1).” 『조선일보』. 1931. 6. 24.  
안석영. “여성선전시대가 오면(2).” 『조선일보』. 1930. 1. 12.  
윤지훈. “모던여성 십계명.” 『신여성』. 1931. 4.  
이애내. “음악은 생활의 한 부분.” 『조선일보』. 1939. 11. 28.  
草笛童. “코리아음악연구소 방문기.” 『사해공론』. 1935. 10.  
홍종인. “반도악단인 만평.” 『동광』. 1931. 6.

### 단행본과 논문

-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 서울: 푸른 사상, 2005.  
김경일. “일제 하 여성의 일과 직업.” 『사회와 역사』 61 (2002), 156-190.

- \_\_\_\_\_.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서울: 푸른역사, 2004.
- 문옥배. 『한국 교회음악 수용사』. 서울: 예술, 2001.
-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사』. 서울: 정음사, 1975.
- 박인덕. 『구월 원숭이』. 서울: 인덕대학, 2007.
- 스몰, 크리스토퍼 / 조선우·최유준 옮김. 『뮤지킹 음악하기』. 파주: 효형출판, 2004.
- 신현규. 『기생 이야기』. 파주: 살림, 2007.
- 알렌, H. N. / 김원모 옮김. 『알렌의 일기』.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 이광수. 『무정』. 서울: 푸른사상, 2011.
- 이태준. 『사상의 월야』 (상허학회 편). 서울: 소명출판, 2015.
- 이화형. 『한국근대여성의 일상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04.
- 이혜구. 『만당속문채록』. 서울: 천보인쇄주식회사, 1985.
- 이혜구. 『만당음악편력』. 서울: 민속원, 2007.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 이효석. 『이효석 전집 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장사훈. 『여명의 양악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1.
- 조윤영. “음악, 근대 그리고 계몽: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은 누구인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 \_\_\_\_\_. “경성(京城)의 음악회(1920-1935): 식민지 일상과 근대의 경험, 그 다양한 시각에 대하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 \_\_\_\_\_. “음악을 통해 근대여성을 꿈꾸다: 차미리사와 근화여학교의 음악 활동.” 『인문과학연구』 27 (2018), 131-154.
- 채현경. “누구의 목소리인가: 서구식 음악교육과 여성의식의 변화.” 『음악과문화』 29 (2013), 119-158.
- \_\_\_\_\_. “하위주체 여성의 목소리 다시 생각하기.” 『이화음악논집』 17/2 (2013), 127-149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 근대체험과 여성공간.” 『한국여성학』 20/1 (2004),

33-56.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7.

인터넷 자료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http://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검색일: 2019. 9. 22.

## Abstract

**The Sound of Women Music Resonated in Chosun:  
Why did “Chosun” women pay attention to “Western” music?**

Cho Yoon-young

This paper offers a portrait of how women of Chosun used Western music to adapt themselves to a new time-space that was modernity and submits some conjectures about the motivations that led “Chosun” women to appreciate “Western” music.

Denied opportunities for voicing their thoughts and views, women of Chosun needed empowerment by Western culture in order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modern women. Many women embraced Western music to make themselves proper members of society and lead their own lives as independent agents. Music, clearly, was more to these women than a channel for making their voices heard.

This study thus describes divers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usic, uncovers the roots of some of the recurring images of women musicians, and illuminates hitherto obscured musical activities by women outside the mainstream establishment.

Key Words: “Chosun” Women, “Western” Music, Modern Women, Piano, Gramophone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16일	2019년 10월 17일 - 11월 29일	2019년 11월 30일

DOI 10.34303/mscol.2019.27.2.003